
2020년 제4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1. 17. ~ 1. 2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 프로그램 | 여러분의 북마크 | | |
|------|--------------|-----|-------|
| 방송일자 | 2020. 1. 17. | 시청률 | 0.046 |

【총 평】

제52회 <단박톡>에서는 '2020년, 남북대중문화 교류를 위한 현실적인 꿀팁은?'이 방송되고 <북마크TV>에서는 '북한이 특별관리하는 최애 겨울 간식은?'이 소개돼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겨울간식을 다룬 소재도 한겨울 시의성에 맞는 적절한 스토리였다. 1998년부터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해 남북 대중문화 교류를 성사시킨 오기현PD를 스튜디오에 초대하여 남북 대중문화 교류의 중요한 이벤트였던 대중가수 합동무대와 함께 이를 통해 변화된 북한의 방송형식, 그리고 남북 문화교류가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해 조용필 평양콘서트 등을 성사시킨 오기현 PD가 출연해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방북공연의 평화적 의미를 털어놓아 흡인력을 제고했다. 오PD는 남북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교류, 소통,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임을 강조해 설득력을 높였다.

<단박톡>에서는 2020년, 남북 대중문화 교류를 위한 현실적인 꿀팁은?이란 내용으로 오기현 PD와 얘기를 나누었다. 1998년 첫 방문 당시에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많은 북한 사람들이 힘든 시기였는데, 2018년은 과거에 비해 활성화 된 상태로 시내 차량정체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문화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공연 문화, 사람들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반대로 북한의 옥류관 냉면 등은 우리 음식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북마크 TV>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북한 간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양도심에 군밤·군고구마를 파는 매대를 따로 마련해 판매할 만큼 평양시민들이 즐기는 최고의 인기 간식이라는 정보가 매우 이색적이었다. 1인 한 봉지씩만 구매할 수 있고 평양시민을 위해 군밤·고구마 특별 관리, 매해 필요한 양을 평양인근 전용 밭에서 재배하며 북한 방식의 고구마 저장방법까지 꼼꼼히 소개해 흥미로웠다.

북한에서는 아로니아를 단나무 열매라 칭하고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 먹고 있음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독일이 김정일에게 선물 한 아로니아 나무를 북한 전 지역에 보급해 재배하게 되었다는 정보전달이 매우 유용했다.

【참고사항】

18:17 김정은 위원장 사진에 '광대승천 무대하면 꽃가루지!'라고 자막을 넣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고 자칫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 제작부 담당PD에게 모니터 의견 전달

| | | | |
|------|--------------|-----|-------|
| 프로그램 | 우리동네 개선문 | | |
| 방송일자 | 2020. 1. 18. | 시청률 | 0.041 |

【총 평】

<우리 동네 개선문> 제16회 방송은 “생활불편 즉시 해결...제천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충북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고충 민원 처리반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지자체의 다양한 대민 사업 및 저소득층이나 1인 어른신 가정을 위한 복지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모습이 잘 담겼다.

“손 편지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톡톡 게시판”으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제안과 지자체의 정책 노력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거버넌스를 소개하였다. 소통 메모와 나눔 카드로 지역민 간의 소통을 잘 보여준 은평구 사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본보기가 되는 정책이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거창한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끌게 되는 것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주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방송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공략했다.

【구성 및 내용】

“생활불편 즉시 해결...제천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충북 제천시의 ‘친서민 생활고충민원처리 기동대’의 활약상과 인원 구조, 민원 처리건 등을 취재하였다.

오늘 소개된 내용은 어느 할머니의 연탄배관을 수리해주는 임무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기동대 대원이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주는 모습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 얼마나 성의 있게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는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부품비를 지원한다고 전해주어 제천시의 복지 행정이 빛을 발했다.

제천시에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생활 고충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 민원으로 생활고충민원처리 기동대원들의 발 빠른 대민 봉사 활약상, 그리고 다양한 생활처리 전문 기술까지 습득해서 열악한 지역을 찾아다니는 기동대의 신속한 활동 현장을 소개하였다.

“손 편지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톡톡 게시판”에서 소개한 지역민 소통 사례는 미래지향적이면서 긍정적인 지자체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동 이용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소통 창구를 위한 공동주택내 “손편지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웃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정을 나누는 우수 마을을 소개하였다.

‘시민이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찾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측면에서 들여다보았다. 서울시 은평구 ‘토닥토닥 톡톡 게시판’에서는 소통 부재 문제를 극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과 지자체의 열린 마음과 정책이 잘 반영된 취재였다. 다만, 구성적으로 지역민 간의 바람직한 커뮤니티 구축 위해 거쳤던 초기 시행착오 및 노하우를 조금 더 공개해서 다뤘더라면 깊이 있으면서 흥미로운 정책 소개였을 것이다.

| 프로그램 | PD리포트 이슈 본(本) | | |
|------|---------------|-----|-------|
| 방송일자 | 2020. 1. 19. | 시청률 | 0.003 |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283회는 지난 2020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어 '더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을 골자로 한 주요 분야 별 정책 방안을 살펴보는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편을 방송하였다. 지난 3년간의 신년사 비교로 '혁신-포용-공정'국가를 늘 강조해 온 기조와, '더욱 더 다듬어지고 보강된 방향성', '올해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 결실 끌어내겠다는 의지' 등을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문재인 케어 정책 및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40대 일자리 정책 지원,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로 발굴 및 육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 및 공정 추구 정책 실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성 및 내용】

신년사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룬 분야는 의료복지 분야로 수면무호흡 환자가 등장해 보기도 양압기를 사용해 잠을 청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아주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 양압기를 구매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또, 보험 적용 전후의 금액을 친절하게 비교해 주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느껴졌고 올 1월부터 적용될 소아당뇨병 등 확대 사항도 상세히 정리가 되어 포용국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조했다.

두 번째로 다룬 분야는 강화된 포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확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세 번째로 다룬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어느 배달 대행 서비스업체의 사례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까지 의미를 확대해서 연결시키려는 모습도 엿보여 시사성도 있었다.

후반부에는 공정에 대한 부분을 한층 강조하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변호사를 섭외해서 공수처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처리의 필요성을 아주 무게감 있게 다루어 설득력이 있었다. 특히 변호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어 이해를 도와준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

끝부분 대학교수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세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되었다. 또, 진행자의 마무리 내용에서 2020년에는 약속한 정책의 성과들이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뛰어주길 바란다는 내용도 국민들의 바람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 여운을 남겼다.

| | | | |
|------|--------------|-----|-------|
| 프로그램 |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 | |
| 방송일자 | 2020. 1. 19. | 시청률 | 0.053 |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16회 '전통 장에 폭 빠졌지예'는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한 골짜기 마을로 귀농한지 15년차가 되는 김향숙, 탁동열 부부의 이야기를 다뤘다.

귀농 15년차 60대 부부가 우리 전통 장을 만들며 넉넉한 인심과 느린 삶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다큐식으로 구성돼 몰입감을 높였다. 또, 우리 콩으로 옛방식대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만드는 제조과정이 소개돼 흡인력을 높였다.

가스 불을 쓰지 않고 장작 땀감으로 콩을 삶는 방식에서 노부부의 전통 고수에 대한 집념을 엿볼 수 있었고, 귀촌자가 많은 마을주민 총회, 주민들의 정겨운 회식 장면도 귀촌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했다.

산사에서의 휴식과 마음 수련, 가족과의 단란한 식사, 부부의 정담 등도 '인생을 메주에 비유하며 사는 부부의 전통 장 만들기의 비결이 숨어있는 듯 보여졌다. 귀촌 15년차 부인의 "좋은 장은 좋은 재료에다 정성과 세월이 보태져야 만들어진다", "귀촌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귀농다큐의 기획의도가 살아나는 술회였다.

【구성 및 내용】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한 골짜기 마을로 귀농한지 15년차가 되는 김향숙, 탁동열 부부가 전통 장 만들기를 비롯하여 현지인과 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정감 있고 따뜻하게 구성했다. 장 만들기로 보내는 하루, 그리고 장 만드는 도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마을 총회에 참석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소사를 의논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장 담그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주 만들기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 전달해 정보전달 측면에서도 돋보였고 녹록치 않은 작업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어 유용했다. 또, 전통방식으로 그대로 장을 담그기 위해 노력하고 위생에 각별히 쓰는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보여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

귀농해서 처음 살았던 집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장 만드는 일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장소가 주는 상징적인 느낌과 잘 어우러졌을 것이다.

【참고사항】

용어통일 이번 방송에서는 방송 내내 자막과 내레이션에서 귀촌(00:25, 09:07, 24:40 등)과 귀농(01:15, 15:25, 26:50 등)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비슷한 혹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어를 통일하여 일관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22:10 옥천사 청련암으로 향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인터뷰를 하는 김향숙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화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 |
|------|--------------|-----|-------|
| 프로그램 | KTV 뉴스중심 | | |
| 방송일자 | 2020. 1. 21. | 시청률 | 0.023 |

【총 평】

오늘은 뉴스 시작과 함께 '데이터 3법' 후속조치 정부 합동 브리핑이 방송되었다. 이후에는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 확대..."국민·선박 보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 "안정적 상태" 등 국민 안전과 보건 뉴스들이 배치되어 관심을 환기시켰고 국민 안위 우선의 방향성도 시청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또, 오늘 오전 국무회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는데, '대통령의 주문-촉구-역설', '구체적 실무적 의결내용'을 분리 전달해 더 체계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 이후의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한 부분을 한 아이টে으로 묶어 전달했다.

다른 뉴스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시행령 개정안' 관련 개정내용의 자세한 내용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묶어 전달했다.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 '종합적 총체적인 메시지, 정책방향 부분'과 '앞으로 실제 실행될 내용들'을 별도로 구성해, 각 뉴스 기능이 차별적으로 살아나고, 정리도 잘 되었다.

【구성 및 내용】

■ '데이터 3법' 후속조치 정부 합동 브리핑

얼마 전 국회통과 된 일명 '데이터 3법'과 관련하여 정부의 후속조치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명정보'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합리화,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로 정리될 수 있다.

■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 확대..."국민·선박 보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아라비아만까지 아우르기로 했다. 해당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 "안정적 상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확진환자는 폐렴소견은 없이 현재 안정적 상태를 유지 중이며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향후 접촉자에 한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 대통령 "검찰개혁,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은 상태로 향후 준비과정부터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통합경찰법의 조속한 입법 또한 촉구하며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도 국회에 촉구하였다.

| | | | |
|------|--------------|-----|-------|
| 프로그램 | 특특 사이다 경제 | | |
| 방송일자 | 2020. 1. 21. | 시청률 | 0.003 |

【총 평】

정부가 글로벌 수소경제 선두 국가를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1년을 조명하고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시의성에 맞는 기획이었다.

특히, 국가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 등의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해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수소경제 활성화의 주요 후속 대책,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 성과, 수소도시 계획과 진행, 지속 성장 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전달해 매우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 수소경제 활성화 1년의 성과와 과제

수소경제 1주년을 맞아 특별히 그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향후 수소차에서 수소를 에너지쪽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밀도 있게 살펴봐왔다.

수소시범 도시로 '안산시, 울산시, 완주군·전주시'가 선정되었고, 수소 R&D 특화도시로 '삼척시'가 선정되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과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204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경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과 정책방향성을 분석해서 전달해 이해도를 높였고, 반도체와 더불어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큰 그림과 긴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 경제&이슈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오늘부터 시작됨을 알리고 자세한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짚어 관심도를 높였다. 또, 농림축산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산물 농약 기준 강화의 긍정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1인 가구 주요정책 변화를 다루었는데, 정부가 4인 가구 중심의 정책과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1인 가구 TF를 꾸려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 정책톡 돈이톡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관해 다루었는데 생동감 넘치는 자막으로 신청 자격과 방법, 기관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이해하기 편했다.

| | | | |
|------|--------------|-----|-------|
| 프로그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 |
| 방송일자 | 2020. 1. 22. | 시청률 | 0.088 |

【총 평】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81회 방송에서는 ‘업계 목 조르는 막무가내 재활용법?’에 대해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인해 빚어진 혼란과 왜곡 보도를 바로 잡는 시간이었다. ‘업계 목조르는 막무가내 재활용법?’라는 부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한 1월에 구축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유색페트병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오락가락한다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재활용 수거 참여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제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법 개정의 근본적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소위 ‘막무가내 재활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또, 하위법령이 오락가락해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조율을 한 사항이고, 시행령이란 것이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의 재활용 수준과 실제 재활용률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유색 페트병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는 보도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는 유색페트병 사용 금지 이유와 무색 페트병 재활용의 용이성, 페트병 맥주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협의 내용을 다루었다. 또, 하위법령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에서는 현실에 적합한 법령 구축을 위해서라는 답변과 함께 해당 개정안에 대한 효과 등을 다뤄주었다.

특히, 장용철 교수가 언급한 “국민들의 재활용 인식과 참여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분리된 재활용품이 좋은 재생원료로 재생산되지 못하는 산업계 문제”를 꼬집은 점은 시청자들에게 시사한 바가 컸다. 또, 그 이유를 대충 넘어가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과 기술적 분리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 팩트체크 1 : 유색 페트병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음료, 생수병만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전체 페트병 생산량의 2/3 해당하며, 나머지 1/3 유색 페트병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페트병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색투명하고 라벨이나 이물질 제거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팩트체크 2 : 하위법령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제도의 틀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 최근 법령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